스위스정부관광청 2017 년 캠페인, '다시, 자연의 품으로'.

스위스정부관광청 설립 100 주년 맞이 캠페인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여행
와일드한 스위스의 면모 발견하는 한 해
청명한 공기와 맑은 물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소개
알프스 오두막에서 숙박하며 별 쏟아지는 알프스 품안에서 잠들어 볼 수도
알프스 동식물 관찰부터 그뤼에르 치즈나 발레산 호밀빵 만들기 체험도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 관광청 설립 100 주년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 주제를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고 선포했다. 캘린더 속에서나 봐왔던 스위스의 그림같은 자연의 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수정같이 맑은 물, 청명한 공기와 바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체험해 볼 수 있는 '와일드'한 면모야 말로 가장 스위스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캠페인으로, 전 세계의 자연 친화적 관광 트렌드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바로, 청명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자연, 쉼이 가능한 고요, 스위스만의 휴양지 느낌이 바로 그것이다. 여름 시즌에 스위스와 스위스의 시골지역을 떠도는 자연 애호가들의 나이는 36 세에서 60 세로, 주로 스위스, 독일, 베네룩스 3 국, 미국,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교통이 제한된 평온한 산악 지방에서 평균 8 일 이상 머물며 자연을 만끽하는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거닐고 발견하며 로컬 맛집을 찾아 다니는 것을 가장 즐긴다. 이미 여러 곳을 많이 여행해 이제 볼만한 것은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위스 여행 트렌드를 분석해도 재방문율이 32%나 되는데, 스위스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40%가 '자연'을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비수기인 봄·가을에도 32%나 점유율을 보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에게 스위스가 매력적인 여행지로 다가가는 큰 이유는 바로, 스위스에서는 자연의 품 안에서 깊숙이 체험할 수 있는 꺼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스위스 전역에 펼쳐진 자연의 품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정통 액티비티의 종류는 700 개가 넘는다. 야생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관찰하거나, 장인으로부터 치즈 만들기를 직접 배워보고, 가난한 알프스 산골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 주었던 옥수수를 제분해 보고, 발레(Valais) 주를 대표하는 호밀빵을 구워보는 등, 이들이 수백년간 살아온 그 자연 속에서 정통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자연 환경으로 인해 다르게 발전한 전통이 '자연의 품'과 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노을 속에서의 카약 경험, 알프스 계곡에서의 캐녀닝 도전, 야생의 새 관찰 등 특별한 액티비티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알프스 곳곳에 세워진 정겨운 오두막에서 숙박을 하며 별이 쏟아지는 알프스 품안에서 잠들어 볼 수도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스위스엔 뉴욕과 같은 빌딩 숲 대신, 아름다운 알프스의 숲이 있다"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빌딩, 와이파이, 잔소리, 의무의 숲에서 벗어나, 걸어서만 갈 수 있는 알프스 절경 체험, 산 한복판에 자리한 미슐렝 레스토랑에서 식사, 온 몸으로 자연을 만끽하는 액티비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행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테일한 체험이 SNS 를 통해 쉽게 공유되고, 그에 따른 요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여행 시장에서 겉핥기식 여행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정보 보다는, 스위스의 자연이 가진 신비를 온전히 체험하고 그 안에서 싹트고 자라난 전통과 문화를 연계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우리 나라 여행자들이 스위스를 보다 깊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마케팅 계획과 여행사 지원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